

배포일시	2019. 7. 19.(금) 11:3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고정석 예보관 박지훈	전화번호	051-718-0200 051-718-0328

제5호 태풍 '다나스' 현황과 전망

- 제5호 태풍 '다나스' 북상, 19일(금)~20일(토) 한반도 영향
- ※ 19일 밤~20일 낮 남해안, 지리산 부근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한 비
- ※ 남부지방 중심 매우 많은 비(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500mm 이상)



제5호 태풍 다나스 예상 경로 및 주변 기압계 모식도

[태풍 현황]

- 현재(19일 09시) 제5호 태풍 '다나스'는 중국(상하이) 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8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. 이 태풍의 현재 중심기압은 990hPa, 크기는 소형이며, 최대풍속은 시속 86km(초속 24m)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[태풍 경로와 강수 전망]

□ 태풍 ‘다나스’는 점차 우리나라로 북상하여 19일 오후 제주도 남서쪽해상으로 진입하여, 20일 새벽 제주도서쪽해상을 지나, 아침에 전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. 이후 남부지방을 지나 경북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20일 밤 동해상에서 열대저압부(TD)로 약화될 것입니다.

○ 앞으로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따라 현재(19일 10시) 영향을 주고 있는 비구름대는 오후(15~18시)부터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.

○ 이후 21일 새벽(03~06시)부터 경남서부지역을 시작으로 오전(06~09시)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.

※ 예상 강수량(19일부터 20일 밤(24시)까지)

- 부산, 경남남해안, 지리산 부근: 150~300mm(많은 곳 500mm 이상)

- 울산, 경남내륙: 50~150mm(많은 곳 200mm 이상)

[태풍 특징 및 유의사항]

□ 이번 태풍은 오늘(19일) 새벽까지 바닷물의 온도가 29도 이상의 높은 구역을 통과하면서 발달하였으나, 오후부터 26도 이하의 구역으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태풍이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일(금)~20일(토)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

- 특히, 어제부터 현재(19일 10시)까지 부산과 남해안 부근에는 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, 19일 밤~20일 낮에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남해안,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누적강수량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, 산사태,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남해동부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점차 태풍특보로 변경이 예상되며, 21일까지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5m 이상 높게 일겠습니다.
- 특히, 19일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 부산 및 남해안은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, 해안가 저지대의 해수 범람이 우려되니,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, 저지대 침수 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
※ 특보 현황(19일 11시 30분 현재)

- 호우경보: 부산, 경상남도(거제, 통영, 창원)
- 호우주의보: 울산, 경상남도(진주, 양산, 남해, 고성, 사천, 하동, 창녕, 함안, 의령, 밀양, 김해)
- 풍랑주의보: 남해동부먼바다

※ 예비특보 현황(19일 11시 30분 현재)

- 풍랑 예비특보
 - 19일 밤: 남해동부앞바다
 - 20일 새벽: 동해남부앞바다(울산앞바다)
- 태풍 예비특보
 - 19일 오후: 남해동부먼바다
 - 20일 오후: 부산, 울산, 경상남도, 남해동부앞바다, 동해남부앞바다(울산앞바다)

[태풍 변동성]

-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 후, 빠르게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, 이동속도가 다소 느려질 경우 강수 지속시간이 길어져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[향후 장마 및 강수 전망(29일 까지)]

- 태풍이 통과한 뒤, 장마전선은 약해져 21일부터 장마는 일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, 이후 **24일(수)**과 **26일(금)**경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.
- ※ 장마전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와 강수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